

## 이해찬(전 국무총리) 2차 구술

1. 구술자: 이해찬
2. 면담자: 김상철
3. 촬영자: 이대희
4. 구술일자: 2011년 12월 15일
5. 구술장소: 서울 영등포구 재단법인 광장
6. 구술분량: 07분 48초 / 일부 공개
7. 주요내용: 2002년 대선후보 단일화 파기와 대통령 당선

구술자 : 서울에서 또 유세가 여러 군데 있었거든. 1) 유세가 잘 진행이 돼서 다 무리가 되는 거야 인제. 신림동이 저녁 일곱 시인가에 마지막, 노 후보의 마지막 유세가 신림동에서 있었어. 내가 하도 선거중앙본부 일 때문에 동네, 우리 지역구 쪽을 한 번도 못 갔었거든 선거 내내. 그래 한번은 그래도 가봐야 되는데 시간이 안 잡혀가지고 맨 마지막 시간 일곱 시인가로 후보가 참석하는 유세를 신림동 개천변 거기서 하게 되어있어요. 공영주차장 있는 데서. 그래서 나도 가서 연설을 해야 되니까 거길 이제 갔지. 갔더니 막 후보연설이 끝나가고 있더구만. 근데 사람들이 꽤 많이 모였더라고. 그래서 후보가 연설을, 마지막 연설을 끝내시고 후보는 먼저 떠나시고 내가 이제 가서 연설을 끝내고 캠프를 돌아오는데 전화가 온 거야.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냐니까 정몽준이가 단일화 철회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거를 대변인 말고 있는 김행 대변인이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기자들이 우리에게 확인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당신들한테 정식으로 통보한 거냐’ 확인한다는 거야. 아, 이게 진짜 큰 일났더구만. 선거가 다 끝났는데 그게 아홉시 뉴스에 나가면 야단나겠더구만. 확인이 되면은. 그래서 내가 차를 빙빙 돌리고선 캠프를 안 들어갔지. 밖에서 저녁을 먹구선 대변인실에다간 ‘절대로 확인해 주지마라, 우리 들은 바가 없다(고 해라).’ 실제로 우리에게 공식 통보한 게 아니니까. 우리는 들은 바가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는 들은 바가 없다 그러고 있는데. 아홉시 뉴스에 우리에게 확인됐버리면 큰 뉴스가 되는 거

1) 2002년 대통령선거 전날인 12월 18일 상황을 말함.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안 들어가고 밖으로 빙빙 돌다가 한 아홉시 반인가 열시쯤 해서 들어갔지. 후보도 그때 들어오시고. 보니까 인제 통보가 온 거야. 단일화 이제 취소한다. 이유도 없어. 그냥 단일화 취소한다고 허구서 연락이 안 되는 거야. 또 인제, 정몽준 후보하고 연락이 안 돼. (노무현) 후보보고, ‘후보가 그래도 정몽준을 찾아가서 왜 그렇게 됐는가 좀 얘기를 하고 그러면 다시 번복을 하도록 해야 된다’ 설득을 하는데 후보가 그렇게 헐 생각이 없는 거라. 나중에 들어보니까 인제 그 종론가 어디 유세에서 말하자면 정동영이하고 추미애하고 단상에서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인제 무슨 표현이 있었다고 나중에 그렇게 들리더라고. 그럼, 그렇다면 가서 사과하고 하면 될 거 같애. 근데 후보가 안 갈라고 그러네. 딱 사람이 막 설득해도 안 갈라고 그래. 그래 내가 들어가서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걸 지금 선거 다 끝났는데, 이겼는데 이렇게 해서 다시 내일 파탄이 나면은 이게 무슨 꼴이 나겠느냐고. 가서 하셔야 되고 이걸 노 후보 개인만의 선거가 아니고 국가의 명운이 걸려 있는 선건데 그렇게 허시면 안 된다고 설득을 해도 영 안 돼. 그래, 나하고 좀 언성을 높였어. 인제. 이게 뭐 개인으로 허는 일이냐고. 그랬더니 한참 생각했더니 가시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정대철 의원<sup>2)</sup>이 모시고 인제 갔어요. 근데 가다가 차가 유턴(U turn)을 한다는 거야.(웃음) 정몽준의 집으로 가다가 차가 유턴을 한다는 거야. 그래 유턴하는 차를 또 막아 세워가지고 겨우 설득을 해가지고 정몽준이 집에까지 간 거 아니에요. 난 안 따라갔고 정대철 위원장이 따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문도 안 열어주고 문전박대를 당한 거 아니에요, 응? 문전박대를 당해서 돌아가서 주무셨지. 그렇게 해가지고 선거가 치러진 거예요.

나는 그때는, 내가 완전히 녹초가 되어가지고 자구서 (선거 당일) 한 아홉시쯤 일어났나? 열시쯤 일어나서 보니까 지고 있더라고. 분위기가. 지구(지고) 있는 분위기라. 출구조사를 했거든 그때 인제. 출구조사 한 거를 보니까 안 되겠어 선거가. 지는. 열시쯤인가? 열한시쯤 내가 보골(보고를) 받아보니까 조금 지는 분위기더라고. ‘아 이거 완전히 짜장면 배달하다 아주 망가뜨렸구나’ (웃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오전만 해도 아, 지는가 부다 해가지고 ‘도리 없지 뭐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어떡하겠어. 정몽준이가 그렇게 해갖고 안 되면 도리가 없는 거지’

---

2) 당시 선대위원장이었음.

그러고 있는데 한 열두시쯤 되니까 좀 분위기가 바뀌는 거라. 젊은 사람들이 투표장에 좀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그러니까 한시, 두시가 되니까 막 대거 나오기 시작하면서 출구조사에서 (득표)율이 자꾸 올라가더구만. 그러고 났는데 막 각종 인터넷에 투표하자는 글들이 뜨고 막 휴대전화들을 하고 그게 막 시작되더니 세시, 네시 되니까 어, 이기는 쪽으로 가더구만. 그러니까 그날 열두시부터 한 세시 사이에 엄청나게 막 전화들 하고 막 이렇게. 그게 순전히 국민들 자발적으로 이뤄진 거거든. 순전히 국민들 자발적으로 이뤄져가지고 세시, 네시가 되니까 확실히 이기는 선거다 라는 느낌이 탁 잡히더구만.

나중에 케이티(KT) 사장한테 들어보니까 이천(2,000)만 통화가 이뤄졌다고 하더만, 그날. 십구(19)일날. 케이티(KT) 역사상 최고라고 그러더구만. 그날 하루에만 이루어진 전화통화가 이천(2,000)만 통화. 그게 전부 이제 투표 독려하는 전환거지. 그게 이루어지는 바람에 승리까지 간 거지. 그래가지고 선거를 기적적으로 이긴 거야. 내가 이렇게 끝나고 나서 보니까 아, 대통령이 되는 거는 자기가 뭐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확실히 되는 길을 점지를 받는 거야. 되는 길을 점지를 받는 거라. 그래 쪽, 김 대통령 때도 그렇고 노 대통령 때도 그렇고 전혀 처음부터 안 된다고 생각했던 길이거든? 후보 때부터. 경선 때부터 안됐다고 생각했던 일이 광주에서 무너져서 되고, 경선 단일화해서 또 되고, 또 단일화 취소했다가 또 무너졌다가 또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모바일로 해갖고 또 되고 허는 걸 내가 보니까 노 대통령이 되는 길이 딱 이게 고비 고비 길을 넘어오는 과정을 통해 보면,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했는데 결국 그게 되고, 되고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내가 큰 대선을 두 번 치러보고 나서 ‘아, 대통령이 되는 길은 정해져 있구나, 운명이구나, 정해져 있구나’ 그런, 내가 생각이 탁 들더라고.

#### ■ 구술자 주요이력

1952. 충남 청양 출생

1971. 용산고등학교 졸업

1985. 서울대학교 사회학 학사

1974. - 1975.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사건으로 투옥  
 1979. 돌베개출판사 설립(대표)  
 1980. - 1982. 김대중내란음모사건으로 투옥  
 1983.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1985.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부대변인, 정책실차장, 총무국장  
 1987.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의원  
 1988.05 제13대 국회의원(평민당, 서울 관악을)  
 1988. 국회 광주민주화운동특별위원회 간사  
 1988. 평민당 원내부총무  
 1991. 신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1992.05 제14대 국회의원(민주당, 서울 관악을)  
 1993. - 1994. 민주개혁정치모임 이사  
 1995.07 - 1995.12 서울시 정무부시장  
 1996. 국민회의 총선거획단 단장  
 1996.05 제15대 국회의원(새정치국민회의, 서울 관악을)  
 1996.05 - 1997.05 국민회의 정책위 의장  
 1997.07 - 1997.12 새정치국민회의 대선기획본부 부분부장  
 1997.12 - 1998.02 제15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분과위 간사  
 1998.03 - 1999.05 제38대 교육부 장관  
 2000.04 - 2000.12 새천년민주당 정책위 의장  
 2000.05 제16대 국회의원(새천년민주당, 서울 관악을)  
 2000.12 - 2001.03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2001.03 - 2001.09 새천년민주당 정책위 의장  
 2002.05 - 2002.06 새천년민주당 서울시장후보 상임 선대본부장  
                   새천년민주당 지방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2002.09 새천년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기획본부 본부장  
 2003.10 열린우리당 창당준비위원회 창당기획단장  
 2004.05 제17대 국회의원(열린우리당, 서울 관악을)  
 2004.06 - 2006.03 제36대 국무총리  
 2006.10 노무현 대통령 정무특보  
 2007.09 - 2007.10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경선후보  
 2009. 시민주권 상임대표  
 2011. 혁신과 통합 상임대표

2012.05 - 제19대 국회의원(민주통합당, 세종특별자치시)

2012.06 - 민주통합당 당대표(2012년 현재)

제13대 국회 초선의원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노동위에서 활약했다. 3당 합당 이후 신민당과 통합한 민주당에 함께 있었으나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 창당으로 다시 당적이 갈렸다. 노 대통령이 1997년 제15대 대선을 앞두고 국민회의로 입당한 이후에는 줄곧 같은 당에서 활동했다. 노 대통령이 1998년 종로 재보선을 통해 10년 만에 재선의원이 되고 교육위를 맡을 당시 교육부 장관으로 상임위에서 만나기도 했다. 2002년 대선 때 중앙선대위 기획본부장을,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역임했다.